

완도 도의원 출마 예정자

주간신문 편집장에 준 돈

신문 구독료나 촌지냐

도의원 출마 예정자가 지역 주간신문 편집장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과 '신문 구독료'라는 주장과 '촌지'였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완도군 선관위는 10일 "주간 W신문 발행인 겸 편집장 김모(43)씨가 민주당 완도군 도의원 출마 후보 예정자 이모(61)씨로부터 촌지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해 음에 따라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8일 오전 9시30분께 김씨가 편집장으로 있는 신문사 사무실에 찾아와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5월11일자 신문에 완도지역 도의원 출마 후보 예정자들의 출마의 변과 관련 인터뷰를 실기 위해 이 후보에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날 이 후보가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현금 20만원을 전달해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5월4일자 W신문에 선거사무실 개소식 관련 기사와 사진이 실려 있어 신문사 사무실에 있는 여분의 신문 30~40부를 가져오면서 신문 값 명목으로 20만원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주간신문인 W신문은 월 구독료가 3천500원으로 1부당 1천원 꼴이다.

현행 공직자 선거법은 신고 포상금의 경우 50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관위가 이를 촌지로 판단하게 되면 포상금은 1천만원에 넘게 된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식사제공 시의원·찬조금 낸 구의원

광주지법,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0일 유권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광주시 의원 박모(5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식사 자리를 주선한 광주 서구 모아파트부녀회 회장 이모(45)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8월 광주시내 모 아파트 부녀회원 8명에게 박씨의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고 삼겹살과 소주 등 16만 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초등학교 동창회와 체육동호회의 체육행사에 참석해 10만원의 찬조금을 낸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광주 북구의회 박모(45)·이모(41)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규 사업계획에 대해 토론하세요”

돌발 질문 없고 실무 아이디어에 중점 학력·나이제한 없애...토익 700점 이상

국내 대기업의 2006년 대졸 신입사원 상반기 공채가 시작됐다. 광주가 연고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항공·타이어·고속·건설 등 10개 계열사에서 200명을 뽑는다.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학생은 1만1천여 명으로 경쟁률은 55 : 1. 금호고속 면접시험(9~11일) 현장을 들여다봤다.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빌딩 15층 면접실. 8조 6명이 의자에 앉았다. 정면에 앉은 3명의 면접관에게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했다. 얼굴은 굳어있었다.

“함께 입사한 동료가 학연·지연으로 먼저 팀장이 됐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유성택(45) 고속영업 담당 이사가 첫 질문을 던지자 모두들 “예상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유 이사가 한 마디 덧붙이자 면접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썰렁해졌다. “중국어로 대답하세요”

다들 당황한 눈치였다. 10초 정도

지났을까. “제가 해보겠습니다”라며 남희수(여·25)씨가 나섰다. “번번 런웨이 슈에워엔 허 띠우엔 판시 부타이 하오”(本人認為學連和地連關係不太好/저는 학연과 지연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한국어로 하겠습니다”라며 옆에 있던 김태현(여·24)씨가 맞받았다. “특히 ‘지연’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집단 면접 시간. 10분 동안의 짧은 휴식 시간을 가진 뒤 8조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이덕연(51) 관리담당 이사가 물었다. “금호고속이 운송사업과 연계된 신규 사업계획을 시작한다면, 어떤 사업이 적절하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니까, 자유롭게 토론하세요.”

송성미(여·24)씨가 “래저 사업과 중국 택배서비스”라는 의견을 내자 “저는 여행사와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우리

(여·24)씨가 뒤를 이었다.

오후 3시10분. 전형을 끝낸 지원자들은 후련하긴 하면서도 다들 아쉬운 눈치였다. 8조 중 유일한 남자인 박정호(26)씨는 “토론 주제를 받고 5분여 동안에 할 말을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면서 “지원했던 분야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야겠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배혜연(24)씨는 “1년 7개월 동안 중국 유학생활도 했고, 스테디 모임을 꾸려 실전 대비 연습도 해왔지만 면접관 얼굴을 보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면접에서 돌발 질문을 하지 않는 게 변화상. 예년엔 순간 대처 능력을 본다든 취지에 서 영롱한 질문을 던졌지만, 전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질문 내용도 실무 위주로 바뀌었다. 면접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지원자일수록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

- ◇금호아시아나그룹 ‘면접 포인트’ 5가지
1.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마라.
 2.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기회를 줘라.
 3. 너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4.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5. 적절한 행동(motion)과 ‘눈 마주치기’(eye-contact)는 필수.

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김현철(47) 경영지원 이사는 “지원자들의 대답 가운데는 조금만 수정을 하면 바로 실무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것들도 튀어나온다”고 귀띔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부터 학력과 나이 제한을 없앴다. 하지만 응시자들은 최소 토익 700점 이상,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읽기 1천807자, 쓰기 1천 자)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병합’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하다. /서울=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지난 9일 오후, 금호고속에 지원한 입사 지원자들이 면접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단토론을 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올 상반기 대졸자 공채부터 학력과 나이 제한을 없앴다. /서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찰, 민주당 광주 동구위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모(52) 민주당 광주 동구위원장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아시아문화포럼’ 사무실을 지구당사로 운영하면서 5·31 지방선거 임의자들로부터 운영비를 걷어왔다는 정황을 잡고

해당 사무실에 대해 10일 오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사무실 관리 서류 일체와 운영위원 명단·통장 등을 확보해 위법 사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 지역위원장이 운영위원 수

심명을 위촉해 구청장·시의원·구의원 임의자들에게 각각 매달 10만~50만원의 운영비를 걷은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비를 납부했다면

운영위원회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해당돼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발기인 총회를 갖고 포럼을 발족하면서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정관을 마련했고, 이 정관에 의거해 운영이사들에게 회비를 걷어 운영하게 된 것”일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연예계 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대 중 35부대 353부대
문의 (062)366-4220

조중훈 순천시장 징역 4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10일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립과 관련, 5천만원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중훈 순천시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감기약으로 요리하듯 히로뽕 제조
○서울 마포경찰은 10일 히로뽕을 제조, 투약한 노모(39)씨 등 전·현직 영어강사 2명과 김모(44)씨 등 투약자 2명을 구속.

○노씨 등은 3월 중순부터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환각성분이 포함된 감기약·다이어트약 54병(병당 50정)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히로뽕 19.8g(시가 1천200만원)을 제조·투약한 혐의. ○노씨는 미국에서 마약 투약혐의로 2년간 수형생활을 할 때 감기약을 이용한 히로뽕 제조기술을 배웠고, 전기스토브·전자레인지·냉장고 등을 이용해 4~5시간만에 순도 95%의 히로뽕을 만들었다고. /연합뉴스

상쾌한 아침 편안한 잠

폭신폭신향 “수맥돌침대”

몸이 찌뿌둥 할 때! 미국 F.D.A승인.

김수환 추기경님 감사제 발동

“수맥돌침대”는 수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수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수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수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연세대학교 최고급제안상 수상

연세대학교 최고급제안상 수상, 연세대학교 최고급제안상 수상, 연세대학교 최고급제안상 수상...

연립회 최고브랜드 大賞

연립회 최고브랜드 大賞, 연립회 최고브랜드 大賞, 연립회 최고브랜드 大賞...

세계 대회 5차례 금메달 수상
미국, 독일, 스위스, 불가리아 등 국제선상

**온나노 특허 “수맥돌침대”
원목가구 친한잠 제품**

www.3000000.com